

세계 최초 BE-OLED 차세대 조명 개발... 내년 상장 앞두고 출자자 모집

주식회사 로미칼

LED보다 3배 밝고 원가는 1/3 수준
1억 투자시 연 1800만원 배당

국내 디스플레이 조명기업 (주)로미칼(대표 최시영)이 차세대 조명이라 일컫는 BE-OLED 유기 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연구 개발하는데 성공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대량생산과 내년 상장을 앞두고 비상장주식 주주겸 출자자를 모집한다.

광원부품 소재기업인 (주)로미칼은 BE-OLED 조명 발명가 존 마그노 박사/CTO(전 웨이브텍 대표)와 세계 최초 신기술, 신소재인 BE-OLED 모듈을 개발하여 국제 특허 획득과 양산기술 확보에 성공하여 본격적인 생산단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E-OLED 모듈 신기술은 기존 LED보다 밝기, 전력 소모량, 수명, 발열, 원가면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의 칭다오 드래곤 스마트 라이츠가 중국 유통 관련 계약으로 3억 달러(약 3300억 원)의 지불 의사를 밝혔고, 인도네시아의 바클리 그룹인 나와찌따 인터내셔널과는 모듈 공급협약을 맺었다. 필립스, GE, 오스람, 도시바, 파나소닉 등에는 샘플 발주가 예약된 상태다.



BE-OLED 모듈 양산 돌입

BE-OLED 모듈은 기존 조명 전력 소모량의 80% 이상 절감하고 밝기는 LED 광원보다 3배 이상 밝다. 수명도 LED보다 2배 더 길다. 발열이 거의 없어 초박형, 초소형 조명 등을 만들 수 있다. 얇고 가벼운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해 곡면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도 적용할 수 있다. 원가는 LED 조명의 3분의 1 수준

이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로미칼은 충남 홍성에 4만9530㎡(약 1만 5000평) 규모의 코오롱 OLED 디스플레이 공장을 인수해 BE-OLED 조명 모듈 생산설비를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품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생산공장의 자산 감정평가 금액은 약 700억원에 이른다.

전 세계 1,000조 조명 시장의 블루칩

우리나라 한국전력의 총 발전 용량은 약 1억 kw로 최대 전력 사용량은 9천만 kw이다. 이중 30.7%가 조명에 사용된다. 전기 소모량이 많았던 백열조명에서 LED 조명으로 일부 교체는 하였지만 여전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기로 전 세계 1,000조 조명 시장에 BE-OLED 개발과 본격적인 양산은 조명시장의 블루

칩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18% 주주배당금 지급 후 출자원금 전액 환매

이번에 비상장주식 투자는 실질적인 제품 양산과 운전자금을 위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출자를 받고 출자기간은 1년이다. 투자자는 이 기간 비상장주식을 할당 받고 1년간 매월 1.5% 나눠 연간 총 18%의 주주배당금을 지급 받게 된다. 계약이 끝나면 할당된 주식은 내년 상장을 위해 (주)로미칼에서 전량 환매하며, 출자원금 전액은 돌려 받는다. 주주혜택 차원에서 1년 계약 만료 후 상장예정인 주식으로 보유를 원할 경우 할당된 주식을 협의 후 정식 주권발행으로 받을 수 있다. 투자금은 최소 4000만원이며 1억원 투자시 연 1800만원의 배당금을 매월 15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 안내

담당부서의 인원 제한으로 자세한 사항은 신청금 100만원을 납입 후 (주)로미칼에 방문하여 관계자와 설명을 듣고 출자를 결정하면 되고, 미출자시 신청금 전액은 환불된다. 신청계좌는 우리은행 1005-803-856465 (주)로미칼이며, 입금후 아래의 문의 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2-6952-4171
(주말 및 공휴일 문의 가능)